

대학생의 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의 조절효과*

김 영 근 강 민 철[†] 조 아 라 이 윤 희
서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및 우유부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진로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성격적 측면과 부모와의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애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던 반면에,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우유부단의 통제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셋째,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을 심리적 독립이 조절하는가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부모애착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간접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지는 못하였으나 진로미결정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효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은 매우 유의하였는데 그 유의성은 우유부단 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계적 요소나 성격적 요소들이 진로상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지지해주고 있는 동시에 효과적인 상담개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들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요어 :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우유부단, 진로미결정

* "This treatise was supported by the project of Global Ph.D. Fellowship which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conducts from 2011."

† 교신저자 : 강민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51-748)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573-6051, E-mail : kkmcc1122@naver.com

대학생에게 있어서 진로결정 문제는 성공적인 초기 성년기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며(김경옥, 류진혜, 2008; 박선희, 박현주, 2009; 이상길, 2008; Super, 1990), 실제 대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0;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 진로미결정이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진로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거나(Crites, 1981; 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혹은 진로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마주치는 어려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Chartrand, Rose, Elliot, Marmarosh, & Caldwell, 1993; Gati, Krauz & Osipow, 1996).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 비하여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더 많이 느끼며, 정체감 위기에 대해서도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박선희, 박현주, 2009). 이렇듯 진로미결정 상태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그동안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는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인관계적인 변인과 성격적인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로 상담은 대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며, 정보제공을 중시하는 합리적 측면이 강하다는 진로상담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Heppner & Heppner, 2003)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로상담자들은 진로상담을 심리치료와 구분하는 인

위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전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타인과의 관계가 진로결정과 같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외적 조건이 같더라도 사람들의 의사결정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차이는 상당 부분 개인 고유의 성격적인 요소에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대인 관계적인 요소들과 내적인 요소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개인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한 가지 대인관계 특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종류의 대인관계 특성이나 성격의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로미결정과 같은 진로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관계변인 및 성격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대인관계 유형 중 가족관계가 개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Savickas, 1997). 특히 부모-자녀 관계 중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 중 가장 빈번히 연구되어지는 변인들이다(선혜연, 김계현, 2007). 한편,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으로는 우유부단(indecisiveness), 특성불안(trait anxiety), 염세주의적 관점(pessimistic views) 등을 들 수 있는데(Saka & Gati, 2007), 이 중에서도 우유부단의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들은 전반적인 의사결정 상황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이다(Germeijs & De Boeck, 2002). 실제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우유부

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된 연구(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에서, 우유부단은 직관적 유형과 확산성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고 의존적 유형과 진로미결정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부단은 대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유부단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유부단이 애착으로부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미결정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조절하는 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완벽성 및 의존성 수준이 높고 자신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이선해, 2010).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우유부단한 대학생들은 우유부단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하여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다라도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다른 변인들과 연계하여 우유부단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통계적으로 설정오류(misspecification)를 줄일 수 있고, 상담 개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특히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진로상담에 있어 여러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내담자의 경우, 진로결정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진로상담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춘 상담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유부단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동시에 우유부단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개입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유부단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관계적인 변인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같은 다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변인이다(정애경 외, 200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 관련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념 정도, 즉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자기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Taylor & Betz, 1983).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모애착과 진로미결정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구본용, 유제민(2010)은 대학생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부모의 긍정적 관여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여학생 집단에서는 그러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광희(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진로결정 사이의 경로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애착은 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와의 관계는 진로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대인관계 영역이다(정애경 외, 2008). Bowlby(1977)는 애착이론을 통해 특정 타인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으려 하는 것을 인간의 기본 동기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가 양육자와 같은 주변의 주요인물과 맺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애착’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어릴 적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아동기 성장 단계에서 뿐 아니라 성인기에 들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Bowlby, 1980)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Blustein, Prezioso와 Schultheiss (1995)는 애착이론을 근거로 하여 부모가 제공하는 안정성이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애경 외, 2008). 이는 부모애착이 진로결정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는 진로탐색 능력을 촉진시켜주며(김수임, 김창대, 2009), 효과적인 진로결정의 중요한 조건인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자아상이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lustein et al., 1995).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역시 애착만큼이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온 주제이다. Blos(1979)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이차적인 분리 개별화’라 하였는데,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이러한 심리적 독립은 건강한 성인기를 누리기 위해 거쳐야할 발달과업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Hoffman(198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잘 이룬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제안되었다. Lopez와 Andrews(1987)는 후기 청소년기의 정상적 발달과업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초기 성인기의 진로발달에 필요한 요소이며 진로미결정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부적절하게 심리적인 독립을 이룬 결과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여러 연구 결과들(박수길, 이영희, 2002; Kinnier, Brigman, & Nobel, 1990)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이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와 Palladino (1991)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나현과 이기학(2005)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정서지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으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서로 별개의, 혹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라기보다 상호의존적인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Lopez & Gover, 1993).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역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미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 대학생의 경우는 부모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미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과 부모애착 간의 관계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조절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위에 제시된 연구들 및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모형은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이다. 부모와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 사이의 관계는 성격적 요소인 우유부단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유부단한 내담자의 경우 단기간의 상담으로 쉽게 진로결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Saka & Gati, 2007). 많은 진로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개입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우유부단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우유부단한 내담자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입 자체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진로미결정에 대한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 제시된 모형에 우유부단을 조절변인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우유부단의 조절효과 중에서도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경로에 대한 조절효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Crites(1969)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 의사결정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켜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하였다. 진로를 결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구별되는 특성에 따라 일시적인 미결정을 보이는 집단과 우유부단한 속성에 기인한 ‘만성적 진로미결정’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Germeijs & De Boeck, 2002). 보통 일시적인 진로미결정을 ‘발달적 미결정’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진로미결정 상태는 대부분의 후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발달적 과업이라 할 수 있다(Betz & Serling, 1993; Meldahl & Muchinsky, 1997). 반면에 성격적 우유부단에 기인한 진로미결정은 높은 수준의 불안, 자기 자신과 결정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혼란스러운 자신에 대한 관념 등을 특징으로 한다(Cohen, Chartrand, & Jowdy, 1995). 이렇게 일반적인 진로미결정과 우유부단에 기인한 진로미결정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다차원적 진로미결정 척도(김정미, 2003; 이성심, 2006; 탁진국, 이기학, 2001; Chartrand, Robbins, Morrill, & Boggs, 1990)에는 성격적 우유부단함이 하위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Cooper, Fuqua, & Hartmann, 1984; Frost & Shows, 1993; Germeijs & De Boeck, 2002)은 성격적인 우유부단함이 진로미결정의 한 하위요인이기보다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의 우유부단 척도를 개발하였다. 실제 우유부단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 상황에 있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유부단을 진로미결정의 하위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변인으로 보고 우유부단이 하위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er(1976)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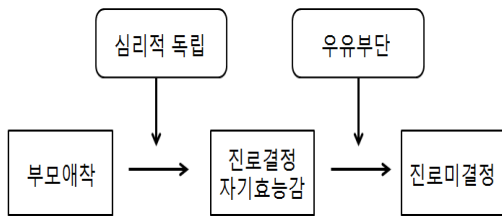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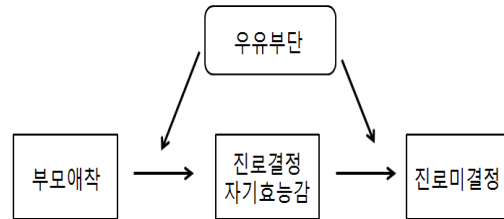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애착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관계적인 요소로, 우유부단을 성격적 요소의 변인으로 선택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1, 2). 첫째,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우유부단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넷째,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우유부단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인천, 충남, 전북에 소재한 12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가 되지 않았거나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02명(남 126, 여 176)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0.85세(SD=2.36)이고, 학년은 1학년 91명(30.1%), 2학년 81명(26.8%), 3학년 52명(17.2%), 4학년 78명(25.8%)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옥정(199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 개발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총 28문항의 부모애착 척도와 25문항의 또래 애착척도로 구성하였으나 Paterson, Field와 Pryor(1994)는 IPPA에서 부모애착을 부 애착과 모 애착으로 구분하여 각 25문항으로 된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 애착과 모 애착으로 분리된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또래 애착 척도는 제외되었다.

IPPA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trust), 의사소통(communication), 소외(alienation)

의 3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신뢰(10문항)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 반응의 안정성’을, 의사소통(9문항)은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소외(6문항)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각각 측정하고 있으며(옥정, 1998),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의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 애착척도 .89, 모 애착척도 .87이었고(Armsden et al., 1987), Paterson 등(1994)의 연구에서는 각각 .94였으며, 옥정(1998)의 연구에서는 부 애착은 .93, 모 애착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부 전체 애착이 .90, 모 전체 애착이 .88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척도별로는 부 신뢰가 .87, 부 의사소통이 .84, 부 소외가 .80이었으며, 모 신뢰가 .88, 모 의사소통이 .82, 모 소외가 .76이었다.

심리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하고 정은희(1993)가 번안 및 수정한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하여 각각 69 문항씩 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정은희(1993)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26문항을 제외한 112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PSI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나누어진다. 기능적 독립(26문항)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실행할 줄 아는 개인적 능력’을 뜻하고 태도적 독립(26문항)은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자기 자신만의 신념, 가치,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독립(20문항)은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갈등적 독립(40문항)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정은희, 1993). Hoffman(1984)의 연구에서 태도적 독립이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대학생의 적응과 부적인 상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적 독립 문항들을 제외시켰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정은희(199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 .81-.86으로,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 .85-.9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하위척도를 합한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87,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86으로 나왔으며, 각 하위척도별로는 모 기능적 독립이 .83, 모 정서적 독립이 .80, 모 갈등적 독립이 .85, 부 기능적 독립이 .85, 부 정서적 독립이 .82, 부 갈등적 독립이 .84였다.

우유부단

우유부단을 측정하기 위해 Frost와 Shows(1993)가 제작한 우유부단성 척도(Frost's Indecisiveness Scale: FIS)를 정혜윤(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우유부단성 척도는 ‘세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결정을 할 때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함으로써 결정이 지연되는 경향’을 측정한다(정혜윤, 2001).

FIS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에 대한 불안과 의심, 결정 속도의 지연, 결정과정의 역기능성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나누어진다. 결정에 대한 불안과 의심(5문항)은 ‘결정을 내릴 경우 경험하는 불안과 선택 후 확신’(예,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종종 염려된다”)을 뜻하고 결정 속도의 지연(5문항)은 ‘대안들의 선택과정에서 쉽고 빠르게 결정을 하는지와 관련된 행동적 지연’(예, “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루는 편이다”)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결정과정의 역기능성(5문항)은 ‘일의 계획이나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구조화 부족과 관련한 결정과정의 역기능성’(예,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과제를 제때 마치지 못 한다”)을 뜻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유부단이 높음을 의미한다(정혜윤, 2001).

척도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고(Frost & Shows, 1993), 정혜윤(2001)은 .87, 이선훈(2010)은 .84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왔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단축형(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을 이은진(200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기존 50문항을 25문항으로 단축한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CDMSES-SF가 6점 척도로 번안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척도개발자들(Betz et al., 1996; Taylor & Betz, 1983)의 원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10점 리커트 척도로 번안된 이은진(200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25가지 진로결정관련 과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진로선택 확신도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전혀 확신이 없다(0)’부터 ‘매우 자신이 있다(9)’에 이르는 10개 구간에서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제시되며,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분된다. 자기평가(예,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직업정보(예,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본다”), 목표선택(예,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미래계획(예, “향후 5년간 자신의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문제해결(예, “선택한 직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의 하위 척도는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은진, 2001).

척도개발자들이 보고한 CDMSES-SF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로 나왔고(Betz et al., 1996), 이은진(2001)의 연구에서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왔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척도별 계수는 자기평가가 .83, 직업정보가 .74, 목표선택이 .82, 미래계획이 .80, 문제해결이 .76이었다.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등(1976)이 제작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S는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는 처음 2문항과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여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16 문항, 그리고 자유 반응형 문항 하나를 포함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향자, 1992).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써 진로미결정만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확신수준 2문항과 자유 반응형 문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CDS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CDS의 내적 합치도는 고향자(1992)가 .86, 유지선(2004)이 .85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왔다.

자료분석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는 크게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에 의한 분석을 들 수 있다. 구조방정식의 경우 다시 크게 다집단 분석 방법과 모형에 상호작용 잠재변인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 다집단 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면 내생변인에 대한 조절변인의 영향력을 알 수 없으며, 상호작용에 대한 잠재변인을 모형에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할 경우 조절변인의 영향력은 알 수 있으나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단계적 회귀분석은 Preacher, Rucker와 Hayes(2007)가 제공하는 SPSS 매크로(MODMED macro 2.0)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표 1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였는데($p < .01$),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r = .010$) 그리고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관계수($r = -.048$)는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미결정 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 = -.427$), 심리적 독립($r = -.341$), 부모애착($r = -.211$)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유부단과는 정적인 상관관계($r = .399$)를 보였다.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수록($r = -.268$),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1. 부모애착	-				
2. 심리적 독립	.010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87***	-.048	-		
4. 우유부단	-.268***	-.255**	-.403***	-	
5. 진로미결정	-.211***	-.341***	-.427***	.399***	-
평균	181.819	261.406	133.608	42.060	37.356
표준편차	29.418	36.552	33.158	7.720	8.412

주. ** $p < .01$, *** $p < .001$.

이루었을수록($r=-.255$) 덜 우유부단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관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1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아래의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1)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모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매개변인 모형, (2) 독립변인인 부모애착,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조절변인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이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인 모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결과표와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 이어 조절된 매개효과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부 매개효과를 두 조절변인들의 조합수준에 따라 제시하였다. 성별과 학년은 공변량으로 지정하여 이 두 변인들의 영향력

을 통제된 상태에서 위의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성별 및 학년의 영향력은 본 연구의 관심 주제가 아니므로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매개변인 모형

먼저 독립변인인 부모애착과 조절변인인 심리적 독립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총점은 부모애착 점수가 1점 올라감에 따라 약 0.408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1$). 심리적 독립의 경우, 이에 대한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는 오히려 약 0.034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아, 심리적 독립 점수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예측력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과 다르게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로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beta=0.106, SE=0.102, p>.05$). 따라서 부모애착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은 심리적 독립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표 2. 매개변인 모형

변인	반응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표준화회귀계수	표준화회귀계수	표준오차	t
부모애착	.408	.362	.075	5.451***
심리적 독립	-.034	-.038	.080	-.430
부모애착 × 심리적 독립	.106	-.020	.102	-1.050

주. *** $p<.001$.

중속변인 모형

중속변인 모형의 주요 목적은 진로미결정 수준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효과를 심리적 독립이 조절하는지와 진로미결정 수준에 대한 부모애착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를 우유부단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한 매개효과를 통제하고 난 후의 부모애착은 진로미결정 수준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36, SE=0.018, p>.05$). 따라서 조절 변인인 우유부단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과 부모애착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독립의 경우 매개모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중속변인 모형에서는 중속변인인 진로미결정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0.072, SE=0.025, p<.01$).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여

($\beta=0.003, SE=0.001, p<.05$), 심리적 독립이 진로미결정 수준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직접효과(비표준화 회귀계수)는 심리적 독립이 1점 높아짐에 따라 약 0.003점 증가해,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유의수준이 .001 미만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부단의 경우도 역시 진로미결정 수준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0.184, SE=0.062, 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우유부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0.004, SE=0.002, 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수준 간의 관계가 우유부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매개변인 모형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또한 중속변인 모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유부단이 유의하게 조절하였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3. 중속변인 모형

변인	반응변인: 진로미결정 수준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부모애착	-.036	-.122	.018	.051
심리적 독립	-.072	-.313	.025	-2.880**
부모애착 × 심리적 독립	.003	.113	.001	2.2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84	-.334	.014	-5.814***
우유부단	.184	.168	.062	2.94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우유부단	.004	.135	.002	2.981**

주. * $p<.05$, ** $p<.01$, *** $p<.001$.

표 4. 조건부 매개효과

변인		반응변인: 진로미결정 수준		
심리적 독립	우유부단	매개효과	표준오차	Z
-1SD	-1SD	-.054	.015	-3.544***
-1SD	1SD	-.014	.009	-1.606
1SD	-1SD	-.078	.020	-3.807***
1SD	1SD	-.020	.011	-1.872

주. *** $p < .001$.

Z값은 부트스트래핑 분포의 정규성 가정 하에서 구해진 수치임.

조건부 매개효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 수준 조합에 따른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 ± 1 표준편차에서의 매개효과 수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조건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구해졌는데,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1,000으로 하였다. 우유부단 수준이 고정되면 심리적 독립 수준은 매개효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지만 우유부단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의 크기는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유부단 점수가 낮은 경우(-1SD)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p < .01$), 우유부단 점수가 높은 경우(1SD)에는 그 크기가 유의하지 않았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독립보다는 우유부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2

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애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비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도 자기표상이 좋지 못하여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로를 우유부단이 조절하는 모형을 상정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경로에 대한 조절변인에서 제거하고 대신에 우유부단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유부단의 영향력이 통제되면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MODMED macro 2.0은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을 각각 하나씩 지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심리적 독립과 부모애착 간의 상호작용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다른 공변량으로 지정된 성별 및 학년은 순전히 통제를 위해 모형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들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 검증은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매개변인 모형

연구모형 2에 대한 매개변인 분석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 1과 다르게 부

표 5. 매개변인 모형

변인	반응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표준화회귀계수	표준화회귀계수	표준오차	t
부모애착	.379	.336	.098	3.872***
심리적 독립	-.110	-.121	.051	-2.150*
부모애착 × 심리적 독립	.044	-.003	.066	.668
우유부단	-1.576	-.364	3.738	-6.551***
우유부단 × 부모애착	.011	.032	.123	.091

주. * $p < .05$, *** $p < .001$.

모와의 애착($\beta = 0.379$, $SE = 0.098$, $p < .001$)뿐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beta = -0.110$, $SE = 0.051$, $p < .05$)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표준화 추정치는 $-.137$ 로 두 변인간의 단순상관계수인 $-.048$ 보다 절대적 크기에 있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어떤 변인의 표준화 회귀계수 절대값이 종속변인과의 상관계수 절대값 보다 커지거나 그 부호가 바뀌는 경우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발생했다고

본다(Kline, 2005). 따라서 우유부단을 통제된 상태에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 억제효과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예측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유부단을 통제해야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두 변인 간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보다 심리적 독립을 이룬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더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종속변인 모형

변인	반응변인: 진로미결정 수준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부모애착	-.008	-.028	.015	-.529
심리적 독립	-.079	-.342	.012	-6.480***
부모애착 × 심리적 독립	.003	.110	.002	2.24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89	-.350	.014	-6.055***
우유부단	.154	.143	.062	2.494**
부모애착 × 우유부단	.001	.011	.002	.46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우유부단	.004	.136	.002	2.5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모형

연구모형 2에 대한 종속변인 모형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인 모형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부모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우유부단이 조절하는가이다. 이외의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결과는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1의 결과와 방향성은 모두 같고 통계적 유의미성에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이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우유부단과 부모애착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그 유의확률이 약 .6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독립 하위 변인들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편상관을 살펴보면 하위변인들 중 오직 정서적 독립만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상관($p < .001$)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가 잘 이루어져있는 학생들은 진로결정에 있어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미결정과는 기능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부모와 기능적으로 혹은 갈등적으로 독립적인 학생들은 진로를 보다 손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가분석: 심리적 독립 하위 요인들과 진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우유부단을 통제한 상태에서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예상과 달리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심리적 독립의 하위 척도들과 진로변인들 간의 편상관 분석(표 7)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부모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우유부단이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는데, 주요 검증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

표 7. 심리적 독립의 하위 척도와 진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1. 정서적 독립	-				
2. 기능적 독립	.735***	-			
3. 갈등적 독립	-.223***	.015	-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99***	.050	-.039	-	
5. 진로미결정	-.040	-.172*	-.336***	-.433***	-

주. * $p < .05$, ** $p < .01$, *** $p < .001$.

심리적 독립 하위 척도와 진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다른 하위 척도들 및 우유부단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편상관계수임.

립은 진로미결정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이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되어 있는 대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려움을 덜 겪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미결정 수준에 부모애착(김은진, 천성문, 2001; 유지선, 2004; 이광희, 2008;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Blustein et al., 1995)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김은진, 천성문, 2001; 박수길, 이영희, 2002; Kinnier et al., 199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Bowlby(1980)가 주장한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전 생애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자기 및 대인표상의 근간이 되므로 대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기 및 외부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부모애착 관계에 있는 대학생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탐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의 애착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역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진로결정에 있어 가족체계 관점을 제시한 Lopez와 Andrews(1987)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들은 청소년 발달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와 가지는 애착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얼마나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독립을 이루었느냐가 진로결정을 포함한 진로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생 시기가 독립된 주체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라는 점과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그러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해주는 발

판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부모애착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던 반면에, 심리적 독립은 우유부단의 통제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다. 우유부단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유나현, 이기학, 2005; Blustein, et al., 1991)과 일치한다. 하지만 우유부단을 통제했을 때는 심리적 독립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바뀌었는데 그 방향성은 예상과는 다르게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즉, 심리적 독립이 잘 이루어졌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우유부단의 통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은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심리적 독립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우유부단의 효과가 심리적 독립의 효과를 억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Josselson(1988)은 부모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과업 중 하나로 부모로부터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 극복을 들었다. 청소년기의 말미인 대학생 시기는 아직 부모로부터의 분리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졸업시기에 내리는 진로 결정은 이후 인생에 지속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놓인 대학생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지는 이들의 불안 수준을 낮춰주고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칫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가 주는 친밀한 관계성(connectedness)이 약해질 수 있으며(Josselson, 1988), 줄어든 정서적 관계는 다시 결정에 대한 불안과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서 제시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단순 상관 및 편상관 계수 결과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비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진로미결정 수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독립보다는 갈등적 독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있어서 갈등적 독립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의사결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영근, 임성문, 2005; 박찬주, 1993; 박현주, 김봉환, 2006)와 일치한다. 이는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은 진로상담 내담자들의 경우, 그들이 독립적으로 진로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감과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 독립 과정에서 그들이 자칫 등한시 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부분을 진로상담 과정에서 다루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을 심리적 독립이 조절하는가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부모애착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간접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지는 못하였으나 진로미결정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효과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이루어진 심리적 독립이 불안애착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진로상담 연구자들이나 상담자들이 심리적 독립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심리적 독립에 비해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물론 부모애착이 진로미결정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부모애착을 진로상담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부모애착을 다루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적 독립의 경우 상담자는 부모와의 역동적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도 내담자의 태도, 신념, 정서를 통해 심리적 독립 문제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진로상담에서의 심리적 독립이 가진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실제 상담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은 매우 유의하였는데 그 유의성은 우유부단 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더라도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대학생들은 진로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우유부단이 부모애착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위의 결과와 더불어 조절된 매개 효과의 다른 조건들 역시 충족되어 부모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우유부단에 의하여 유의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유부단과 같은 성격적 요인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여러 연구자들(Gati, Krausz, & Osipow, 1996; Saka & Gati, 2007)의 주장들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록 진로상담이 일반 상담에 비하여 보다 문제 중심적이고 단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유부단한 내담자의 경우 보다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진로상담에서 우유부단한 내담자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보제공이나 다른 단기적인 개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근본적 성격요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개입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에 대한 관계변인인 부모와의 애착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격변인인 우유부단의 영향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지만 애착과 심리적 독립 같은 대인관계변인과 우유부단과 같은 성격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관계변인과 성격변인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특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둘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조절변인으로써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심리적 독립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상담에 있어서 개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지만 진로미결정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변인인 우유부단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내담자들에게 효율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심층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의 전반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독립의 하위 척도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독립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의 하위 척도들을 구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유부단의 역기능을 부모와의 관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진로 관련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구가 우유부단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밑그림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록 본 연구가 진로상담에 있어 우유부단한 내담자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하지만, 진로상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입이 이들에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우유부단한 내담자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를 밝혀줄 수 있는 진로상담 과정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용, 유제민 (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김경옥, 류진혜 (2008).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에 대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73- 92.
- 김수임, 김창대 (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 김영근, 임성문 (2005).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상호의존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상담학연구*, 6(1), 171-184.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 4(1), 147-162.
- 김정미 (2003).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수길, 이영희 (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 박찬주 (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 김봉환 (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19-439.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 2007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연구소. *서강상담연구*, 1, 21-44.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0). 효과적인 대학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생의 의견조사 보고서: 2009년 8월 및 2010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선혜연, 김계현 (2007).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분석, 1997~2006년. *상담학연구*, 8(4), 1467-1483.
- 유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나현, 이기학 (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51-466.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길 (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교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217-230.
- 이선해 (2010).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과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심 (2006). 한국대학생 진로미결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33-650.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미결정 및 관련 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 연구*, 9(2), 551-564.
- 정은희 (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윤 (2001). 강박성향과 우유부단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연구*, 1(1), 167-180.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etz, N. E., & Serling, D. A. (1993). Construct validity of fear of commitment as an indicator of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21-34.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si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I: Some principles of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5), 421-431.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London: Hogarth Press and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Chartrand, J. M., Robbins, S. B., Morril, W. H., & Boggs, K.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491-501.
- Chartrand, J. M., Rose, M. L., Elliot, T. R., Marmarosh, C., & Caldwell, C. (1993). Peeling back the onion: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66-82.
- Cohen, C. R., Chartrand, J. M., & Jowdy, D. P. (1995).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0-447.
- Cooper, S. E., Fuqua, D. R., & Hartman, B. W. (1984). The relationship of trait indecisiveness to vocational uncertainty, career indecision,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4), 353-359.
- Crites, J. O. (1969). *Problems in vocational choice.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Frost, R. O., & Shows, D. L. (1993). The nature and measurements of compulsive indecisivenes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1(7), 683-692.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ermeijs, V., & De Boeck, P. (2002). A measurement scale for indecis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career indecision and other types of indeci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2), 113-122.
- Heppner, M. J. & Heppner, P. P. (2003). Identifying process variables in career counseling: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3), 429-452.
- Hoffman, J.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Lapsley, D.K. & Power (de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91-108). New York: Springer-Verlag.
- Kinnier, R. T., Brigman, S. L., & Nobel, F. C. (1990). Career indecision and family enmesh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3), 309-31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6), 304-307.
- Lopez, F. G., & Gover, M. R. (1993). Self-report measures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A selective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5), 560-

- 569.
- Meldahl, J. M., & Muchinsky, P. M. (1997). The neurotic dimension of vocational indecision: Gender comparabilit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3), 317-331.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B., & Koschie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ision)*. Columbus, OH: Marathon Consulting & Press.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Preacher, K. J., Rucker, D. D., and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3), 340-358.
- Savickas, M. L. (1997). The spirit in career counseling: Fostering self-completion through work. In D. P. Bloch & L. J. Richmond (Eds.), *Connection between spirit and work in career development*(pp.3-25). Palo Alto, CA: Davies-Black Publishing.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 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okar, D. M., Withrow, J. R., Hall, D.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3-19.

원 고 접 수 일 : 2011. 9. 2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6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24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decisiveness on the Relations Among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Youngkeun Kim

Minchul Kang

Ahra Cho

Yunhe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decisiveness moderated the mediational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Three hundred two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Findings in the study showed that 1)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areer indecision; 2) psychological separation did not significantly moderate the mediational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bu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direct effect of parent attachment on career indecision; and 3)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areer indeci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was significantly moderated by indecisivenes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decisiveness, career indecision